

□ 일본 생산동향

- 일본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1998년 23ha에서 2002년 19ha로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하여 2008년에는 61ha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네덜란드, 뉴질랜드산 파프리카 수입이 많아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의 파프리카 재배면적 및 생산량 >

단위 : 천톤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재배면적	23	21	19	44	56	61
생 산 량	1,368	766	1,046	2,195	2,323	3,057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야채생산상황표식조사(野菜生産状況表式調査), 각 연도

- 일본 내 국내 생산의 파프리카는 수요의 대부분은 수입품이며, 국내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은 소량에 불과함
- 따라서 파프리카의 국내 생산에 대해 그 실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많지 않으며, 통계치 작성 시 점보 피망과 동일한 품목 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일본 수입동향

-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0709.60

- 일본에서 파프리카가 속하는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만, 미국 등으로 조사

< 일본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류 수입 규모 >

단위 : 달러, %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2010/2009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총계	83816879	88668441	110987640	25.17
1	한국	57561080	57617202	63600323	10.38
2	네덜란드	12083414	15367627	27341110	77.91
3	뉴질랜드	14164018	15683612	19968599	27.32
4	오만	0	0	69404	0.00
5	미국	8367	0	8204	0.00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월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봄철에는 한국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수입량은 많지 않음. 반면,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고품질의 네덜란드 파프리카의 수입비중이 높음
- 한편, 겨울철에는 일본과 기후가 반대인 뉴질랜드에서 다량의 파프리카가 수입되고 있음
- 이 때문에 3~7월은 타국가보다 한국의 수출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12~2월에 뉴질랜드산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파프리카 월별·국별 수입구조 >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2009	한국	49	55	74	96	127	131	129	56	35	50	81	11.7
	뉴질랜드	162	17.1	147	125	3.9	0.2	0.0	0.0	2.0	8.7	12.5	12.1
	네덜란드	0.0	0.1	0.7	2.7	4.6	9.4	10.3	26.0	28.4	14.5	3.3	0.1

출처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한편, 일본에 파프리카가 속하는 HS코드 0709.60류(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의 경우 일본 국내 생산량이 적어 수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출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

○ 일본시장 내 한국 파프리카

-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일본 전체 파프리카 수입 중 네덜란드산이 60%로, 그 외에 한국과 뉴질랜드산이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였음
- 그러나 최근 한국산의 대일본 수출이 확대하면서 한국산 수입 비중이 2010년 64.0%로 가장 높아 최대수입국으로 부상한 반면, 네덜란드산의 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일본 통관 및 수입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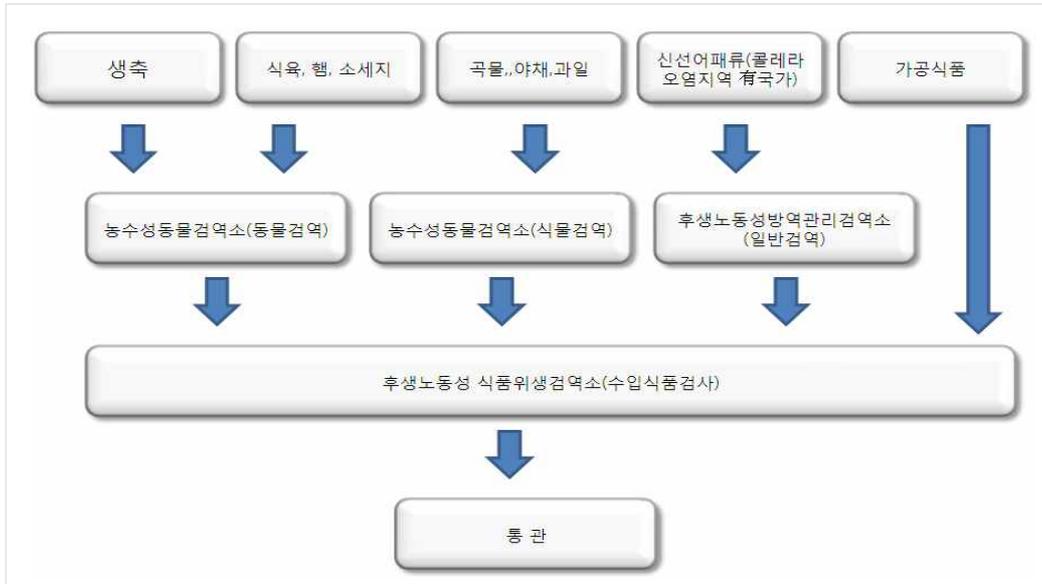
- 대표적인 사례인 파프리카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중에 선별 포장하여 부산항에 운송,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페리호로 해상운송하면 3일차 오전에 통관절차를 밟고 일본현지의 양판점 등 실수요처나 각 지역 도매시장에 운송되어 판매됨
- 일본에 수출되는 채소, 화훼의 경우 여객선 페리를 통해 운송하여 운송 시간을 단축함
- 수입국에서는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위해 다소의 체류시간이 있어 소매점 판매까지 수시간에서 1일 정도 더 소요

- 검역 및 위생 관련 신고

- 일본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위생검역의 절차를 거쳐야함
- 검역 절차는 수입하는 항구, 공항을 관할하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 수입 식품 감시 담당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검역소의 심사 검사 후, 동 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 완료"표시가 날인되어 반환
-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는 동식물검역 및 일반 검역의 제외 대상으로 식품위생검역의 절차만 받으면 됨

< 일본의 농식품 검역 절차 >



출처 : 일본무역진흥기구

- 한편, 일본의 식품위생법 제 16조에 따라서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물건) 또는 포장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정해진 바에 따라 후생노동성대신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식품 등의 수입 신고는 일본의 전국 31개 항구 및 공항의 식품 감시 업무 담당 창구가 있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 접수하고 있음
- 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출국(한국) 정부 기관에 의해서 발행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역소에서 감시 및 지도를 실시함
- 이 신고서는 수입식품 도착 7일 전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서류 심사의 결과가 문제가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 필증이 교부됨

- 다만 위생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지역 내에서 검사가 행해지고 수입의 여부가 판단됨
- 사전에 후생노동대신 지정된 일본 내 검사기관, 혹은 등록되어 있는 국외 검사 기관에서 자주적으로 검사해 두면 그 결과가 검역소에서 행해지는 위생검사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지므로, 그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위생검사가 생략되어 수입 절차가 간결해짐
- 또한 컴퓨터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입절차를 전자화 한 수입식품 감시 지원 시스템(FAINS)의 이용이 가능함
- FAI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FAINS의 소프트웨어와 시판되고 있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후생노동대신에 신청하여 패스워드를 취득해야 함
- 이 시스템에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전자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일본 내 파프리카의 협정세율은 3%임

□ 일본 가격동향

- 일본 온라인 점포에서 판매되는 파프리카 가격

제품명	사진	무게	가격	원산지
빨강피망		150g	238 엔	네덜란드
노랑피망		150g	238 엔	네덜란드
네덜란드산 파프리카		200g	262엔	네덜란드
오렌지 파프리카 레이디		-	360엔 (세금포함)	일본 구마모토
블랙 파프리카		-	380엔	일본 구마모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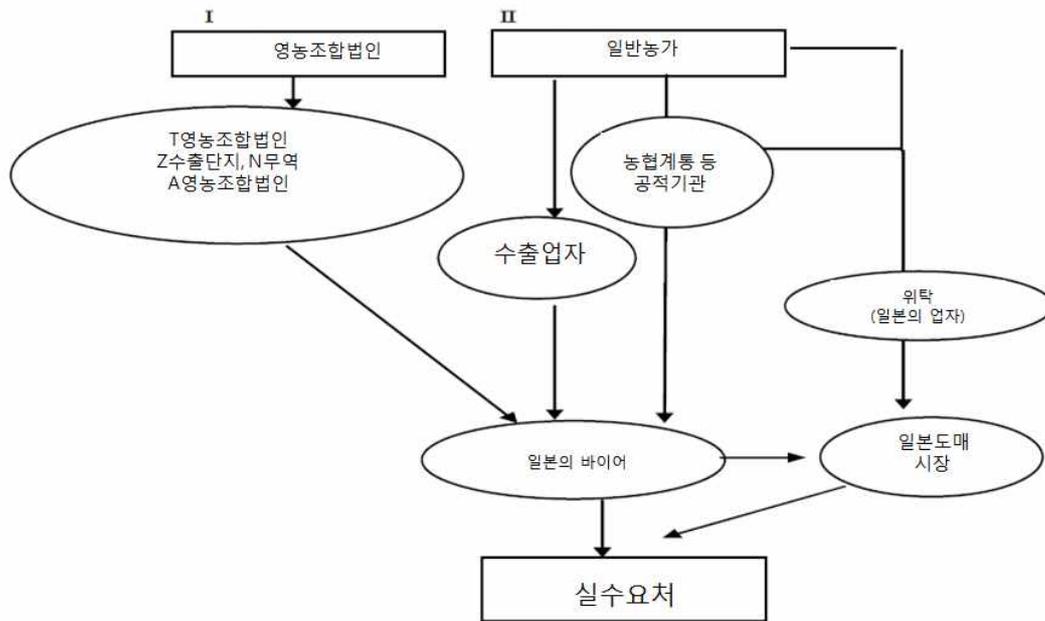
<p>파프리카 2 색</p>		<p>-</p>	<p>398엔 (적/황 2개)</p>	<p>한국산</p>
<p>한국 파프리카 오렌지</p>		<p>-</p>	<p>262엔</p>	<p>한국산</p>

□ 일본 유통동향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과채류 생산은 주로 한국 농림부가 지정한 104 개소의 "원에 전문 수출 단지" 및 지방 자치 단체 (도로)에 지정된 213 곳의 수출 단 지역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

- 파프리카의 수출 경로는 우선 생산 단계에서 보면 크게 영농조합 법인과 일반 농가 구분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크게 T 영농조합법인, A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뉘어짐

< 일본으로의 파프리카 수출(유통) 경로 >



- 영농 조합 법인의 특징은 생산 초기부터 유리 온실을 갖추고, 높은 생산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대규모 출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임
- 한편, N 무역 회사는 T 영농 조합 법인이 대일 수출시 수출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몇 가지 법인과 함께 시작한 회사로, 생산 이외의 모든 것, 즉 수출 관련 물류 결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A 영농조합법인은 2001년까지 T영농조합법인이 주도하는 N 무역 회사에 발송하고 공동 선별을 하고 있었지만, 이후 탈퇴한 뒤 개별적으로 선별 수출을 하고있음
- 일반 농가는 일반 생산자 및 조직에 의한 생산 방식이며, 여기에는 법인도 포함되지만, 상기의 법인에 비해 생산, 집-출하 시설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

- T (N 무역 회사)와 A 영농 조합 법인을 일본 측의 구매자는 고정되어 있으며, 국내 업체의 개입없이 직접 일본에 수출하는 경로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 수출 수입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국내 자료에 따르면 파프리카 수출 업체는 공식적인 데이터만으로도 50개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동향은 일본의 도매 시장에 직접 상장하는 방법도 눈에 띄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입업자 등이 대신하여 상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 밖에 농협 무역(농협 중앙회 자회사), 유통 공사 등 공공기관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공공기관들을 활용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것임. 오히려 산지의 요구에 따라 지역 농협이 무역 담당 부서를 만들고 직접 무역 업무를 하고 있는 곳도 있음

□ 일본 소비동향

- 일본에서 파프리카는 기존의 유사소비 품목인 피망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며 소비량이 최근까지 급증하고 있음
- 일본 내 파프리카 소비량은 연간 2만 6,000 ~ 2만 7,000 톤, 피망 소비량은 15만 톤으로 소비 대체에 대해서는 조리방법에 차이가 있어 대체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임
 - 파프리카는 샐러드, 이탈리아 피자, 양식의 색깔 맞추기

등으로 주로 사용되거나 피망은 주로 볶음요리로 사용하고 있어 대체 효과가 적다고 봄

- 최근 일본 내에서 파프리카는 초기의 업무용 소비중심에서 일반 가정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가장 인기있는 규격은 M 사이즈로 1개 무게 170~200g 정도, 30개 들어임
-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색상은 적색으로 전체 판매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노란색이 20%, 오렌지색이 10%, 녹색, 검정, 흰색, 갈색 등 기타 색상이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